



우리 아이를 위한 차량 안전장치

카시트는 안전띠 착용이 어려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좌석에 설치하는 의자입니다. 베이비 시트, 차일드 시트, 부스터 시트 등이 포함된다. 여러 실험 결과 카시트 없이 어린이를 뒷좌석에 태운 경우, 앞좌석 등받이에 부딪혀 입을 상해가 머리는 10배, 가슴은 2배 이상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따르면 1-2세용 카시트를 장착할 경우 71%, 3-6세용 및 7-12세용 카시트를 장착할 경우 54%의 사망 감소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짧은 거리를 저속으로 운행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아이는 카시트에 제대로 태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blog.naver.com/sfdirect)가 어린이를 위한 차량 내 안전장치에 대해 설명했다.

■ 카시트

● 0-2세 바구니형 카시트



신생아 시기는 뼈가 연약하기 때문에 목과 허리 등을 단단히 고정해 줄 수 있는 바구니형 카시트를 장착해야 한다. 특히 만 1세 미만 신생아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카시트를 정방향이나 후방으로, 조수석이 아닌 뒷자리에 설치해야 한다.

● 3-6세 컨버터블 카시트



신생아 시기를 지나고 아이의 몸이 많이 자란 시기에는 카시트 교체가 필요하다. 아이가 스스로 앉을 수 있는 시기부터는 앉은 각도, 벨트, 헤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컨버터블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 컨버터블 카시트의 경우 전방을 향해 설치해도 되지만, 신생아 시기와 마찬가지로 조수석 설치하는 권장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체중 20파운드 이하의 아동은 반드시 뒷좌석에 후면 방향으로 앉아야 하며 13세 이하의 앞좌석에 탑승할 수 없다.

● 7-12세 부스터 카시트



6세 이후엔 아이의 앉은 위치를 높여 성인용 안전띠를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부스터 시트' 형태를 쓰게 된다. 안전띠가 목에 걸리는 등 잘못된 위치로 인해 부상 위험이 높아

지기 때문이다. 대개 신장이 140cm 이상이면 성인용 안전띠를 그냥 쓸 수 있다고 하지만 12-13세까진 카시트를 사용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만 8세 미만 어린이는 뒷좌석에 장착된 카시트 혹은 어린이용 보조 의자에 태워야 한다. 다만 8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키가 4피트 9인치 이상이면 부스터 없이 성인용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있다.

■ 차일드락 & 윈도우락

차에 타면 이것저것 눌러보느라 정신이 없는 아이들! 이때 함부로 문을 열거나 창문을 열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준비된 기능들이 있으니 바로 차일드락 & 윈도우락 기능이다. 이 기능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다. 차일드락 & 윈도우락은 옵션이 아닌 모든 차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기능이다.

● 차일드락



차일드락은 아이들이 자동차 문을 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기능은 안전을 위해 수동 제어하도록 되어 있다. 차일드락 버튼의 경우 대부분 차량은 뒷문을 열고 옆면을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차일드락 설정 시 반드시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양쪽 문에 차일드락을 걸지 않는 것이다. 만약 사고 발생 시 차일드락을 양쪽 문에 모두 걸게 되면 탈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윈도우락



윈도우락은 차일드락에 비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잘 알고 있는 기능이다. 말 그대로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한다. 윈도우락의 경우 보통 운전석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버튼을 누르면 운전자 외에는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없다.

● 후석 승객 알림

종종 뉴스를 통해 차에 홀로 남겨진 아이와 관련한 사고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아이들의 경우 체구가 작아 타고 내리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데, 이처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후석 승객 알림이라는 서비스가 옵션으로 적용되는 추세이다.

후석 승객 알림이란 운전자 하차 시 아이의 자동차 탑승 여부를 감지하여 경보음과 메시지를 발송해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다. 만일 운전자가 하차한 뒤 뒷좌석에서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외부 알림 및 개인 메시지로 알림이 전송된다. 아이가 있는 운전자라면 옵션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사진/일러스트=shutterstock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년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05	\$278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4년 현재 174.7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예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822	\$2,465
Asset Limit	\$16,600	\$33,24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T.714.872.9377